

한국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한 종교현상학적 연구(1):

교차 문화적 포교와 한국 무슬림의 문서 선교를 중심으로*

안 신**

- I. 서론
- II. 이슬람 다와(선교)에 대한 교리적 이해
- III.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문서선교에 나타난 유형과 변화
- IV. 결론: 요약과 전망

I. 서론

종교는 진화한다. 본질적인 부분은 항상성을 지니지만, 가변적인 부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언제나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물론 본질적인 부분과 가변적인 부분을 구별하는 기준과 입장에 따라서 그 해석들도 다르게 나타나고, 포스트모던시대를 맞아 종교의 본질을 전제로 한 기존의 거대담론들과 동일성의 탐색들에 대한 거센 비판들도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종교가 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하는 성격 때문에 종교를 일종의 유기체로 보는 견해까지 등장하였다.¹⁾

이와 같은 종교의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흥운동이나 개혁운동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공동체의 익숙한 활동범위와 문화권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영토와 문화로 의도적인 확대를 시도해 나가는 교차 문화적 포교나 선교에 관련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51-A00229). 2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과제로서 이 논문은 1년차 연구 진행의 중간보고서에 대한 사례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및 종교학과 강사, shinahn@snu.ac.kr

1) David Sloan Wilson, *Darwin's Cathedral: Evolution, Religion, and the Nature of Society* (2002), 이철우 역, 『종교는 진화한다: 진화론과 종교, 그리고 사회의 본성』(서울: 아카넷, 2004), pp. 9-14.

된 활동은 종교공동체의 역동성을 잘 드러내 주는 종교현상이다. 부흥과 개혁이 공동체 내부의 교리적 통합과 윤리적 각성 및 황금시대의 재현을 강화시키는 중심력의 기능을 담당한다면, 포교나 선교는 공동체의 비전을 공동체의 외부로 확산시키는 원심력의 성격이 강하다.²⁾

본 연구는 한국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한 종교현상학적 연구라는 큰 주제 아래 교차 문화적 포교의 차원에서 한국 무슬림의 문서선교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세계 인구의 반수를 훨씬 넘어서는 이슬람(16억)과 기독교(20억) 사이에 상호 만남의 역사는 평화로운 공존과 소통보다는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한 충돌과 전쟁의 양상이 두드러져왔다.³⁾ 한국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기독교와 불교가 각각 29.2%와 22.8%로 거의 대부분의 종교 인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현존과 무슬림 공동체를 한국 사회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유입이 늘고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무슬림 인구는 약 1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 수치도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 무슬림을 포함한 것이다. 사실 한국 무슬림의 규모만 본다고 하면 전체 인구의 0.1%에도 못 미치는 3만 5천 명 정도에 머물고 있다.⁴⁾ 따라서 한국의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는 최근 서유럽 종교담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최근 유입된 '종교적 소수자'와 사회의 기득권을 누려온 '종교적 다수자'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과 유사하다.⁵⁾

2) G. van der Leeuw,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trans. by J. E. Turner, (New York: Harper & Row, 1963), pp. 609-625. 반 델 레우는 종교의 역동성을 혼합주의, 선교, 부흥, 개혁 등의 현상에서 파악하였다. 안 신, 「부흥과 선교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종교 현상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 21집, 2008, 193-219. 필자는 종교현상학자들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부흥과 선교의 관계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3) David Kerr, "Islamic Da'wa and Christian Mission: Toward a Comparative 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vol. 89, no. 353 (April, 2000), 150-171. 커는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화해를 위한 선교를 위하여 열 가지 제안을 하였다. 특히 화해와 대화를 강조하는 그의 입장은 한국의 종교적 지형도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 안 신, 「이슬람 다와와 기독교 선교에 대한 비교 연구: 폭력과 비폭력의 경계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 50집, 2008, 219-245. 아랍어 '다와'(da'wah)는 '초대'를 의미하는 소극적 방식의 선교이다. 기독교의 선교가 특정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선교사를 양성하여 타문화권에 파송하는 적극적 방식을 취한다면, 이슬람은 비무슬림들이 무슬림의 생활방식에 감화를 받아 강요 없이 이슬람 공동체(우마)의 일원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 다와를 하는 사람을 '다이'(선교사)라고 하는데 기독교처럼 전업으로 선교에 종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4) 이 수치는 정확한 통계적 자료에 기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수일 뿐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5) 최근 불교의 명상과 힌두교의 요가가 서유럽에 대체종교의 형태로 유행하고는 있지만, 한국

기독교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지만 유럽을 건너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퍼져나갔듯이, 불교가 인도에서 발흥하였지만 동남아시아와 극동아시아를 거쳐 북미와 유럽에 상륙하였듯이, 이슬람도 교차 문화권 포교를 통하여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세계종교로 성장하였다. 세속화를 심각하게 경험해 온 전통적인 기독교 문화를 지녔던 북미와 유럽에서 이슬람은 이제 기독교 다음으로 규모가 큰 제 2의 유럽종교로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한 2001년 뉴욕 911사태, 2003년 마드리드 통근열차폭파, 2005년 런던 지하철 폭파 등의 사건들을 계기로 서구인들이 이슬람의 원리주의를 물리적 폭력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게 되었고 '이슬람혐오증'(Islamphobia)과 같은 사회병리 현상마저 유행하게 되었다.⁶⁾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 이슬람의 다와(선교)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태원에 위치한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제작 발간해 온 이슬람 문고 시리즈의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 이슬람 문서선교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슬람 다와가 지닌 종교적 의미를 '무슬림의 시각'에서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것이다.⁷⁾ 이미 한국이슬람연구소의 전재옥 교수는 이슬람의 선교가 종교적 차원을 벗어나 경제, 외교, 정치, 교육의 차원에서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는데,⁸⁾ 필자는 그 다양한 선교방식들 가운데 문서를 통한 선교를 분석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만큼 불교의 영향력이 사회전체에 스며들어 있지는 못하다. 안 신, 「유럽 이슬람 공동체의 최근 동향과 전망: 서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2. no. 2. (June 2009), 19-51. 필자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의 이주 무슬림 공동체의 지형도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 6) Jenny Taylor, "Islamphobia and the Church," in Lesslie Newbigin, Lamin Sanneh, and Jenny Taylor, eds. *Faith and Power: Christianity and Islam in 'Secular' Britain* (London: SPCK, 1998), pp. 127-131. 한국의 이슬람혐오증에 대해서는 김상근, 「이슬람 포비아에 대한 선교신학적 성찰」, 《선교신학》, 21집 (2009), 171-196을 참조하라. 필자는 감신대에서 열린 이슬람 포럼에서 연세대 김상근 교수의 글을 논평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이슬람 세계관에 기초한 상호 이해와 대화의 노력이 한국 기독교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7) 종교현상학자들은 이슬람을 공감적이며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Jacques Waardenburg, *Muslims and Others: Relations in Context*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를 참조하라. 21세기 기독교는 개종을 전제로 한 공격적인 교리 중심적 '정복의 선교'보다는 상호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적 이해를 기초로 하는 '화해와 대화의 선교'가 필요하다. 선교학과 종교학의 학제 간 연구로는 안 신, 「이슬람 선교의 다양화와 종교학의 기여: 이해와 화해, 그리고 대화의 선교」, 《선교신학》, 제 23집 (2010), 123-151을 참조하라.
- 8) 전재옥, 『기독교와 이슬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pp. 86-89.

II. 이슬람 다와(선교)에 대한 교리적 이해

지혜와 아름다운 설교로 모두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되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그들을 맞으라. (『꾸란』 16: 125)⁹⁾

위에 인용된 꾸란의 구절은 무슬림들이 왜 선교를 하는지 그 목적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알라)¹⁰⁾의 길을 세계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슬람 문명은 다양한 문화적 도구를 사용해 왔다.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종교적 진리가 지닌 보편성을 강조하며 문화적 경계와 언어적 차이를 넘어 모든 인류가 기존의 종교들이 제시하는 길을 버리고 이슬람을 새롭게 수용해야 할 신에게 이르는 곧은 길, 바른 길, 선한 길이라고 증언하고 이 고백을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이슬람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114장으로 구성된 꾸란은 신이 아랍민족에게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예외 없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이미 계시되었던 내용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목적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내용이다. 꾸란은 이슬람이 지닌 계시의 절대성과 무함마드의 최종적 권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일러가르되 백성들이여 실로 너희 모두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보내셨노라 그 분 외에는 어떤 신도 없으며 생명을 주시며 앗아가는 분도 그분 이시라 그러하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무학자 선지자를 믿으라.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인도되리라.¹¹⁾

이처럼 무슬림들은 무함마드를 정점으로 하여 이전의 아담, 아브라함, 노아, 모세, 예수로 대표되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신의 한결같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우매한 종교지도자들을 꾸짖고, 우상숭배를 반대하며, 신의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신의 길을 회복하고 인류를 초대하는 다와의 행위는 일부 특정한 무슬림들에게 부여된 특권이 아

9) 본 논문에서 꾸란을 인용할 때에는 최영길 역,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마디나: 파하드 국왕 성 꾸란 출판청, 1997)을 사용하였고 이후 『꾸란』으로 표기하였다.

10) 한국 무슬림 공동체는 ‘알라’의 초월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으로 번역한다. 필자는 두 종교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꾸란과 저서를 직접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슬람의 경우에 ‘알라’를, 기독교의 경우에 ‘하나님’을 신에 대한 용어로 사용하였다.

11) 『꾸란』 7: 158.

나라 모든 신실한 무슬림이 실천해야 할 의무이며 생활강령인 것이다.

하나님이 각 민족에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피하라 하였으니 그들 중 하나님께서 인도한 자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방황하는 자도 있었으니 대지 위를 여행하며 진리를 부정하는 이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보라.¹²⁾

이슬람은 당시 유일신교를 대표하던 유대교와 기독교와 경쟁관계를 이루며 성장하였다. 무슬림은 7세기 무함마드가 히라동굴에서 받은 계시가 앞에 전해진 계시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시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언자들이 전해왔던 계시들의 내용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존하여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아랍민족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선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태초에 이미 계시되었던 신의 메시지를 갱신하고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무함마드는 유교의 공자처럼 개혁가이지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¹³⁾ 이슬람의 신학에 따르면 신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예외 없이 전해왔다. 꾸란은 “하나님은 그대를 복음의 전달자와 경고자로서 진리와 함께 보냈으되 실로 어떠한 백성 중에서도 경고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노라.”¹⁴⁾고 기록하고 있다.

무슬림의 시각에서는,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도 모두 참된 무슬림일 뿐이다. 그들이 전했던 종교적 메시지도 모두 동일하며 그들을 보낸 이도 동일한 유일신 알라인 것이다. 그러므로 무력이나 강제로 비무슬림들에게 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지혜와 신뢰를 가지고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칼리드 웨이크는 이슬람의 다와가 맞게 되는 세 가지 걸림들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이웃종교의 현존보다는 현대 사회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팽배가 다와를 방해한다고 보았다. 영적인 각성을 통하여 스스로를 정화하고 사후세계를 준비하며 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다와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슬람의 법과 정의에 기초하여 정부를 운용하고 다스리는 것은 다와의 수단일 뿐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신의 계시대로 삶을 사는 것이다. 둘째, 이슬람 공동체(움마)의 분열이 전통이나 종파마다 다른 형태의 이슬람들을 구축함으로써 상호 간에 화해와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순니파와 시아파의 문제를 넘어, 민족과 국가마다 이슬람의 샤리아법에 대한 적용과 해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대적 적용의 문

12) 『꾸란』 16: 36.

13) Khalid Mahmood Shaikh, *Da'wah in Modern Times* (New Delhi: Adam Publisher, 2006), p. 94.

14) 『꾸란』 35: 24.

제이다. 셋째 서구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이슬람 국가들이 서구의 세계관을 이슬람 문화발전의 척도로 삼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사대주의에 함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¹⁵⁾ 그러므로 팔레스타인문제와 이라크전쟁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책임론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 문명의 억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슬람의 선교는 세속주의와 공동체의 분열 및 서구의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과 같이 현실적 문제에 대한 종교적 치유책으로서 제시되고 있고, 무슬림 공동체의 결속력과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무슬림은 다와를 ‘알라의 명령’이며, ‘무슬림으로서의 의무’이고, ‘알라에 대한 봉사’로 간주한다.¹⁶⁾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다와의 대상은 전 인류이지만, 예언자 무함마드의 전승(하디스)에 따라 다와의 실제적인 대상을 순차적으로 가족→친척→이웃과 친구→지역 공동체→국가→세계로 분류한다. 무함마드의 경우에도, 최초로 계시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회심한 인물들은 그의 아내 하디자, 그의 사촌 알리, 그의 친구 아부 바끄르였다. 꾸란에도 “그대의 친척들에게 경고하라.”는 구절이 있다.¹⁷⁾ 마바바야도 비무슬림에 대한 다와보다도 일가친척과 친구들에게 다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비무슬림이 무슬림의 신념과 행동에 감화되어 개종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메시지에 대항하여 반발하여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불신자’에 대한 ‘복음화’보다는 기존 신자에 대한 ‘재복음화’가 한층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종교 간 대화에서도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화의 상대로 볼 수는 있지만, 불교와 무신론은 대화의 상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¹⁸⁾ 무슬림들은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오염된’ 신의 계시를 ‘잘못 믿는’ 형제와 자매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우리는 여기서 무슬림의 광의적 의미(유일신론)와 협의적 의미(이슬람)를 발견할 수 있다.

이슬람 다와는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분류에 토대를 두기보다는 ‘실천적 무슬림’(practicing Muslim)을 이상적인 단계의 순으로 ① 무흐신(Muhsin), ② 무으민(Mu'min), ③ 무슬림(Muslim)으로 세분하여 인식한다. ‘무슬

15) Shaikh, *Da'wah in Modern Times*, pp. 95-98.

16) Norlain Dindang Mababaya, *Da'wah according to the Qur'an and the Sunnah* (Riyadh: Darussalam, 1998), pp. 15-21.

17) 『꾸란』 26: 214.

18) 조주, “이슬람과 불교”, “이슬람, 다가서다”: 이해와 공존을 위한 종교간 세미나 발표문,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주관, 2010년 6월 1-2일, 72-82. 중앙아시아에서 19년 간 불교 포교 활동을 해 온 조주 스님도 이슬람 이해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는데, 두 종교 간의 ‘소통’보다는 ‘불통’이 부각된 글이다.

림'은 이슬람의 다섯 가지 의무를 실천하는 사람이며, '무오민'은 이슬람의 여섯 가지 믿음을 신앙하는 경건한 무슬림을 뜻한다. 반면에 '무흐신'은 알라를 두려워하며 경건하고 정의롭고 악의 유혹을 삼가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단계의 무슬림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 분류의 무슬림에 속하지 못하면 ④ 알라가 아닌 신들을 신봉하는 다신론자를 의미하는 무슈리크(Mushrik)로 간주되거나 ⑤ 이슬람에 대한 무지에서 위선자로 살아가는 무나피크(Munafiq)로서 '명목적 무슬림'(nominal Muslim)의 그룹으로 분류된다.¹⁹⁾ 결국 이슬람의 다와는 크게 인간을 '본성을 회복한 무슬림'과 '본성을 상실한 무슬림'으로 구분함으로써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모두 다와의 대상으로 보는 포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슬람 다와를 전개하는 선교사(다이)는 무엇보다도 꾸란과 전승에 기초한 다양한 덕목들과 실천사항들을 갖추도록 교육되어진다. 무슬림들이 이슬람의 선교사에게 기대하는 덕목들은 종교적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비무슬림을 대하는 만큼 대인적인 기술도 함께 요구된다. 마바바야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내용을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²⁰⁾

(1) 알라에 대한 믿음: 신학적 차원

- 1) 알라에 대한 신실함
- 2) 알라에 대한 감사
- 3) 알라에 대한 사랑과 헌신
- 4) 알라에 대한 기억
- 5) 알라에 대한 신뢰
- 6) 여섯 가지 믿음
- 7) 알라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

(2) 공동체의 유대감과 소속감: 윤리적 차원

- 8) 의로움
- 9) 알라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
- 10) 보편적 형제(자매)에 구축
- 11) 사탄에 대한 적대감
- 12) 시기와 질투의 삼가
- 13) 증오와 의심의 제거
- 14) 자비와 친절

19) Mababaya, *Da'wah according to the Qur'an and the Sunnah*, p. 30.

20) Mababaya, *Da'wah according to the Qur'an and the Sunnah*, pp. 32-194.

(3) 이슬람의 우월성과 통일성: 담론적 차원

- 15) 이슬람 지식에 대한 사랑
- 16) 유일신 지식으로의 초대
- 17) 진리의 원천으로서 꾸란과 하디스에 대한 의지
- 18) 종교혁명에 대한 거부
- 19) 신뢰와 진정성
- 20) 계획
- 21) 지혜와 아름다운 설교를 통한 초대²¹⁾

(4) 무슬림의 관계적 덕목: 사회적 차원

- 22) 인내와 끈기
- 23) 일관성
- 24) 절제
- 25) 시간의 가치
- 26) 죽음, 무덤, 사후에 대한 기억
- 27) 최후의 심판과 사후 상벌에 대한 믿음
- 28) 균형 잡힌 생활방식과 천국의 영생에 대한 소망

(5) 비무슬림에 대한 기본 태도: 문화적 차원

- 29) 무슬림에 대한 환대와 비무슬림에 대한 경고
- 30) 겸손
- 31)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
- 32) 용서와 회개
- 33) 이슬람의 전인적 실천
- 34) 무슬림에게 이슬람의 전인적 삶과 선교에 대한 독려

-
- 21) 마바바야에 따르면, 지혜로운 이슬람 다와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들은 다음과 같다. a. 기도를 통하여 우아한 연결과 지혜를 위한 영감을 얻는다. b. 확신을 가지고 말하라. c. 친근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여라. d. 폭언 대신에 친절한 말로 이슬람에 초대하라. e. 이슬람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라. f. 좋은 말을 하고 욕하지 말라. g. 헛된 논쟁은 피하라. h. 노하거나 싸우지 말라. i. 꾸란과 순나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객관적으로 이슬람을 설명하라. j. 이슬람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설명하라. k. 교훈을 줄 만한 비유들을 사용하라. l. 다와를 위한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지루하지 않게 하라. m. 관심을 일으키도록 간단명료하게 강의하라. n. 감성적으로 말하라. o. 주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요한 점은 반복하고 큰 소리로 말하라. p. 이해를 돕기 위해 적절한 표현을 한다. q.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시각 자료를 사용하라. r. 강의안을 나누어주라. s. 이해했는지를 묻고 질문을 받으라. t. 다와나 강의를 마친 후 꾸란 구절로 비무슬림의 마음을 열라. u. 참된 알라께 기도하라고 충고한다. v. 다와를 위해 다른 모든 소통수단을 사용하라.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은 이슬람 다와의 복잡성과 현대문화의 변화에 따른 상황적 적용의 상이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슬람의 다와는 신학적, 윤리적, 담론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들이 면밀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영역으로 환원되기보다는 일상을 통한 전인적인 교육과 포교가 이루어지도록 무슬림 공동체의 성원들에게 다와의 필요성을 독려한다. 다와는 알라에 대한 헌신적인 믿음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봉사의 표현으로 구체화되는 것이며, 효과적인 전달을 위하여 평화로운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성과 속의 영역을 나누려는 서구의 이분법적 삶의 태도와는 달리, 성의 영역이 속의 영역으로 침투하고 변화시키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리적 기초 아래 이슬람 선교의 노력이 한국 무슬림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제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최근 출판해 온 문서를 중심으로 그 선교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자.

Ⅲ.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문서선교에 나타난 유형과 변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슬람 선교는 교리적으로 꾸란과 하디스에 기초하고 있지만²²⁾, 실천적 차원에서는 비무슬림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체계적이며 다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중동 건설 붐과 함께 3만 5천명까지 증가했던 한국 무슬림 공동체는 1990년대에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서 활동에 탄력을 받았지만, 기독교와 불교의 사례와 같은 성장의 지속적인 동력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총 여섯 권의 이슬람 문고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 소책자들은 성원을 방문하는 비무슬림들에게 이슬람의 교리와 실천 및 공동체를 소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필자는 이 홍보책자들의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문서가 고려하고 있는 선교의 대상과 기독교에 대한 접근태도의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1. 이슬람의 기본 교리를 소개하는 유형: 기초다지기

이슬람 문고 시리즈의 제 1권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의 선교위원회가 쿠웨이트

22) 박현도, 「대화와 소통의 관점에서 본 이슬람교」, 2010년 춘계학술대회 한국종교교육학회 발표문, pp. 9-24.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슬람의 기본적 교리들을 중심으로 제작한 소책자이다.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여섯 가지 믿음[六信]과 다섯 가지 의무[五柱]를 큰 골자로 삼고 있지만, 주로 이슬람의 신념체계를 비중 있게 다루며 무슬림이 믿고 있는 내용(content)을 간추려 소개한다.

여섯 믿음의 체계에 따라, 첫째, 알라에 대한 믿음을 “알라”(1장), “이슬람”(2장), “무슬림”(3장)으로 설명하고, 둘째, 예언자들에 대한 믿음을 “예언자들”(4장)과 “예언자 무함마드”(5장)로 구별하고 있고, 셋째, 하나님의 성서들에 대한 믿음 역시 “성서들”(6장)과 “꾸란”(7장)을 비교하고 있다. 넷째 “천사들”에 대한 믿음(8장), 다섯째 “내세”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믿음(9장)은 간략하게 다룬 후에, 여섯째 정명(定命)에 대한 믿음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비교적 간단히 언급만 되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한국사회에서 이미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기독교와 같은 기존의 유일신교가 전하는 신학적 교리들과 이슬람의 핵심 교리를 비교함으로써 교리의 차이를 드러내고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소책자는 다수의 한국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을 이슬람 선교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²³⁾ 첫째, 이슬람의 어원적 의미 가운데 평화를 강조함으로써 2001년 뉴욕 쌍둥이 빌딩 폭파 사건 후에 한국사회에서 퍼져 있는 이슬람의 폭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그 실추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²⁴⁾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이슬람의 어원적 의미를 평화와 연계시켜 강조하였다.

이슬람은 또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잘 지키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슬람은 “평화”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복종입니다. 이슬람은 우리의 창조자이시자 주님이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통해 평화를 구하는 것입니다.²⁵⁾

23) 유일신관을 공유하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하여 이슬람 문서선교를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토양에서 형성된 이슬람 신학의 내재적인 특징이기도 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꾸란 자체가 바로 문서선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4) 안 신, 「서양영화의 이슬람 편견에 대한 연구: 네덜란드 단편영화의 무슬림 폭력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30-3호 (2010), 165-190.

25)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초보자를 위한 이슬람 바로보기』(서울: 한국이슬람교중앙회, 2006), p. 8. 이 소책자의 영문 저서명은 “The Principles of Islam”이며 2002년 7월에 처음 출판되기 시작하여 2004년 6월에 2판이, 2006년 5월에 3판까지 출판되었다. 이슬람으로의 잠재 개종자를 위하여 14곳 이슬람 성원의 주소와 연락처를 실어 놓았다.

둘째, 이슬람 신앙의 표현을 ‘포괄적’ 유형과 ‘세부적’ 유형으로 구분하여, 여섯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기독교인이 이슬람의 신앙고백에 대하여 개종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슬람의 일신론에 신학적으로 공감하여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알라를 “우주의 창조자”, “유일한 통치자이며 주인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초월적인 신의 속성과 이름에 있어서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신관 사이에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으로 강조한다.²⁶⁾

셋째, 꾸란의 무오성과 최종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서의 경전으로서의 권위를 일체 부정한다. 예언자 예수[이사]가 받은 복음서[인질]는 아브라함[이브라힘]의 수후프, 다윗[다우드]의 자부르, 모세[무사]의 따우라[모세오경]와 마찬가지로 알라에게서 받은 계시이지만 현재 온전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기독교에 남아있는 사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을 비롯한 신약성서는 전승과 편집의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으로 왜곡되어졌다는 판단하는 것이 이슬람의 기독교와 유대교의 경전에 대한 입장이다. 아래 인용은 조금 길기는 하지만 이웃종교에 대한 이슬람의 경전에 대한 관점을 잘 드러내 준다.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이 전의 예언자들에게 주신 성서들은 완전히 보존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는 사람들에게 의해 없어졌고 예언자 “이브라힘”의 성서 또한 아예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또 어떤 성서들의 내용은 인간에 의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예언자, “다우드”, “무사”, “이사” (그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성서들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없어졌거나 잊혀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서 내용의 몇몇 부분을 마음대로 첨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과 뒤섞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본래의 계시 말씀대로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완전한 계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계시는 마지막 성서인 “꾸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모든 성서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 성서들은 잃어버렸거나 변질되었으므로 무슬림들은 “꾸란”의 말씀만을 따라야 합니다.²⁷⁾

성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는 경전의 권위를 인정하는 듯이 보이지만 마지막에 계시된 꾸란의 절대적 권위만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무슬림에 대한 이슬람 다와는 배타적인 신학

26) 한국 무슬림들은 알라를 ‘하나님’으로, 알라의 계시를 ‘복음’으로 번역함으로써 이슬람을 처음 접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3가지 한국어 번역 꾸란에 대한 비교연구는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종교 간 대화와 이슬람 선교에 대한 연구를 위해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남아 있다.

27)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초보자를 위한 이슬람 바로보기』, pp. 18-19.

적 기초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넷째, 이슬람의 신념체계를 믿고 바른 행동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일신 개념에 기초한 신앙의 선언이 무엇보다도 먼저 요청된다.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유형의 칼리마(구절)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마지막 두 구절은 무함마드의 사도됨에 대한 고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신론자들의 접근과 대화를 가능케 한다.

1. 하나님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자이다.
2. 나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자임을 선언합니다.
3. 지고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미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숭고하시며 지고하신
 하나님 외에 그러한 힘을 가진 자는 없나이다.
4. 하나님 외에 신은 없나이다. 그 분은 유일하시어 동반자가 없나이다.
 그분께 모든 주권이 있나니, 모든 찬미를 그분께 드리웁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셨으며,
 모든 훌륭한 것은 그분으로부터 왔나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시나이다.²⁸⁾

이처럼 유일신 신앙에 기초하여 이슬람의 보편성과 포괄성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무슬림들은 한국 문화에 생경한 ‘아랍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포함할 수 있는 ‘세계의 종교’로서의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한국 사회에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무슬림은 꾸란을 “이 세상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책”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바른 안내서”라고 주장한다. 인류가 알라에게서 받은 원초적 계시를 7세기에 무함마드가 새롭게 재현했다는 점에서, 이슬람 안에는 이미 두 가지 평가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다. 무함마드에 의하여 주창된 ‘역사적 이슬람’과 아담에 의하여 처음 전해진 ‘원형적 이슬람’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연속성과 단절성을 강조하는 사뭇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2. 한국 무슬림과 잠재적 개종자를 향한 양방향 선교의 유형: 복음화와 재복음화

28)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초보자를 위한 이슬람 바로보기』, pp. 31-34.

1권이 출판된 지 4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소재자들이 등장하였다. 왜 이렇게 출판이 지연된 것일까? 우리는 2001년 9월 뉴욕 빌딩폭파사건 이후에, 2004년 3월 스페인 통근열차 폭파사건과 2005년 7월 영국 지하철폭파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이슬람과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세계인의 두려움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국 무슬림의 문서선교를 위축시켰다. 따라서 내적으로는 한국 무슬림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면서도, 외적으로는 한국 무슬림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양방향으로 문서선교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2권과 3권이 2006년에 3개월 간격을 두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출판되었다. 먼저, 2권의 표지부터는 “선교위원회”라는 문구와 전국 성원소개에서 “이슬람을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기 주소로 연락”해 달라는 포고를 의미하는 명시적 문구가 생략되었다. 2권의 처음 세 장은 이미 출판된 1권의 내용을 요약하여, 이슬람과 신앙(이만)의 의미를 설명하고 다섯 기둥을 요약하고 있다. 1권이 첫 번째 기둥 신앙(이만)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면, 2권은 두 번째 기둥 예배(살라)의 준비, 알림, 종류, 방법, 애송되고 있는 꾸란의 짧은 장들을 본격적으로 설명한다. 반면에 3권은 앞의 시리즈와는 달리 아랍어에 익숙하지 않은 비무슬림을 위한 선교용 홍보책자로서 독자가 이슬람에 대하여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3권 역시 1권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요약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진자료와 컬러인쇄를 통하여 내용의 전달효과를 극대화시켰고,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분을 추가한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왜곡되지 않은 이슬람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해되어 왔던 사안들을 조목조목 밝히고 친절히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독자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방어적이며 일부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21세기 초반에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와의 관계를 기정사실화하는 미디어에 대한 불만과 저항심이 표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1권과는 달리, 2권이 중점을 두고 있는 이슬람의 예배는 이슬람에 입교한 모든 한국 무슬림들의 의무이므로 지금까지 비무슬림들에게 배포되기보다는 이제 막 이슬람을 믿기 시작한 무슬림 초신자를 교육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요청을 하면, 비무슬림도 이 소재자를 보유할 수는 있지만, 이슬람의 교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적지 않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알라와 하나님을 “하나님(알라)”으로 병기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의무예배(파르드)가 끝난 이후에 아래와 같은 개인적인 기도(두아)를 한국어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은 한국 이슬람 입교자의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

한 설명으로 보인다.

주님이시여!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지옥의 정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내려주소서. 실로 당신이야말로 베푸시는 분이시나니²⁹⁾

이슬람의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과 예배를 알리는 의식으로 구성된다. 의도(니야)와 청결(따하-라)이 적절히 시행되지 않는다면 예배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부분 세정(우두)과 전체 세정(구슬) 및 대체 세정(타암뭉)을 상황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소책자는 무슬림 남성과 여성의 삽화를 적절하게 순서대로 배치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무슬림이 우두할 때 주의해야 할 다음과 같은 사항이 소개되어 있다.

여자의 경우 매니큐어나 짙은 화장은 물이 스며들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를 지운 후 우두에 임한다.

하루 다섯 번 근행하는 의무예배(파르드)와 금요함동예배(주므아)³⁰⁾ 외에도 임의예배로서 밤예배(이샤) 후에 홀수로 근행하는 위트르 예배와 축제(이-드) 예배 및 장례(자나-자) 예배를 소개한다. 비무슬림이 이슬람 성원을 방문하는 경우에 낮예배(주흐르)와 오후예배(아쓰르)를 관람할 수 있지만 사전에 예배의 순서에 대한 숙지가 없다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란 어렵다. 예배를 시작하면 서 있는 자세(끼암)에서 꾸란 1장 개경장을 소리를 내어 낭송하는데 이슬람 신학에 나타나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하루 적어도 무슬림들이 17번씩[라크야] 다섯 차례의 예배를 통하여 아래의 구절을 반복한다는 사실은 이슬람의 독특성을 넘어 우월성을 강화한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당신의 노여움을 받은 자들[유대인들]의 길이 아니고,
또 방황하는 자들[기독교인들]의 길도 아닌,
당신께서 은총을 내려주셨던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³¹⁾

29) 한국이슬람중앙회, 『예배입문』(서울: 한국이슬람중앙회, 2006), p. 27. 영문 저서명은 "Guide to Prayer"이다.

30) 매주 금요일에 행하는 금요함동예배는 낮예배(주흐르) 시간을 활용하지만, 이 함동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낮예배를 행한다.

한편, 3권은 2권과 마찬가지로 꾸란과 하디스의 구절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흥미로운 시각자료들을 보다 다채롭게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메카에서 성지순례(하즈)를 하고 있는 한국 무슬림들이 태극기를 든 모습과 서울중앙성원의 전경뿐만 아니라 부산성원, 광주성원, 전주성원, 안양성원의 사진이 첨부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한국 이슬람의 교세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이슬람중앙회 홈페이지와 기타 한국 이슬람에 관한 웹 페이지 주소들이 첨부되어 있다.

2006년에는 10개 정도의 이슬람 관련 웹 페이지가 운영되었지만, 2009년에 수정하여 발행된 3권에는 그 중 3개가 폐쇄되었고 싸이월드의 한국이슬람신도회를 제외한 여섯 웹 페이지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슬람 성원연락처도 14개에서 16개로 증가하였다. 3권에는 여섯 믿음과 다섯 기둥 외에도 이슬람 축제, 결혼, 음식 등의 이슬람 문화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이슬람 편견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새롭게 추가된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1) ‘알라’는 아랍어로 ‘하나님’을 뜻한다.
- 2) 무슬림들에게 무함마드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 3) 꾸란은 무함마드가 저술한 책이 아니다.
- 4) 꾸란은 내용상 모순이 없으며 전 세계 모든 꾸란은 처음 게시된 원본과 한 치의 다름도 없다.
- 5) 이슬람은 아랍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다.
- 6) 이슬람은 보편적인 세계적 종교이다.
- 7) 우리사회에서 ‘이슬람교’를 ‘회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슬람교, 또는 이슬람으로 불러야 한다.³²⁾

이와 같은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서구사회에서 이미 오래 전에 이슬람에 대한 객관적 연구로 극복되었지만, 기독교와 불교가 주류 종교로 기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평가되기보다는 사회불안의 요소로서 혹은 개종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책자는 꾸란에 언급된 25명의 예언자 가운데 모세(무사)와 예수(이사)가 있음을 강조하

31) 한국이슬람중앙회, 『예배입문』, p. 21.

32)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슬람이란?』 (서울: 한국이슬람중앙회, 2006), p. 8. 영문 저서명은 “What is Islam?”이며 2009년 2월 수정판에는 “우리사회에서 ‘이슬람교’를 ‘회교’ 또는 ‘마호메트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슬람교’로 불러야 한다.”로 변경되었다.

고³³⁾, 무슬림 남성의 수염을 유대인의 수염, 무슬림 여성의 가정생활을 서구여성의 가정생활, 그리고 무슬림 여성의 머리가리개(히잡)를 가톨릭 수녀의 복장과 비교하며 이슬람 문화의 정당성과 가치를 호소하고 있다.³⁴⁾

결국 2006년에 출간된 2권과 3권은 처음 1권이 지니고 있었던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이슬람에 대한 차별화된 지적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무슬림 교육과 비무슬림 선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이슬람 관련 웹 페이지를 구축하여 소책자가 다루지 못한 심도 있고 풍부한 이슬람의 교리, 역사, 문화, 영상콘텐츠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교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3. 이슬람 영성을 소개하는 유형: 축제를 통한 이슬람 이해

비무슬림이 라마단 달을 전후하여 이슬람 성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단식이 무슬림들에게 지니는 종교적 의미를 설명해 주는 4권 『라마단과 단식』(*Ramadan and Fasting*, 2008)을 배부한다. 단식의 의미를 “자기수련의 과정”, “하나님에 대한 순종”, “육체적 욕구의 억제”, “자기 정화의 수단”, “면죄와 용서, 형제(자매)애와 동정심 고취의 기회”로 다양하게 설명함으로써, 다섯 가지 의무들 중 하나이면서도 “인내심과 자제심을 기르는 수행방법”으로까지 그 의미를 승화시킨다.³⁵⁾ 한국의 가톨릭에서 나타나는 피정이나 불교의 마음챙김과 같은 종교적 수련에서 어느 정도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교리와 예배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이슬람을 영성과 문화적 축제의 차원에서 설명한다.

라마단 달은 음식의 절제뿐만 아니라 언어사용과 행동 및 경제활동에서도 투명하고 바른 생활을 요구한다. 따라서 “단식 중에는 욕설과 중상모략,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 불필요한 말이나 나쁜 말을 금하고 음란한 행위나 음탕한 일에 눈길을 보내는 행위 또한 금해야 한다.” 단식을 통하여 의학적, 생리적 효과와 정신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자신과의 투쟁’, 무슬림들 간 형제(자매)애의 강화, 인내와 감사의 기회를 얻기도 한다.

꾸란의 계시가 라마단 달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스러운 ‘권능의 밤’에 무슬림

33) 최영길, 『꾸란과 성서의 예언자들』(서울: 살림, 2009), pp. 182-207, 264-281.

34) 무슬림 여성과 히잡착용 문제는 안 신, 「무슬림 여성의 히잡착용에 대한 종교현상학적 해석: 정치적 기제에서 종교적 상징으로의 전환」, 《아시아여성연구》, 48권 2호, 2009, 185-220을 참고하라.

35)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라마단과 단식』(서울: 한국이슬람교중앙회, 2008), pp. 5-6.

은 꾸란을 암송하면 천 개월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는다고 믿는다. 따라서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꾸란 암송과 예배 및 기도에 더욱 힘쓴다. 단식을 통하여 굶주림의 고통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난한 이웃을 돌아 볼 수 있는 회사의 기회도 갖는다. 단식을 깨는 음식(이프타르)을 제공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고 지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도 존재한다.

다섯 의무들에 속하는 또 다른 의무인 회사(자카트)는 일 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내지만, 라마단 달이 마칠 때 “자카트 피뜨르”라는 특별회사를 하기도 한다. 이 회사를 통하여 스스로를 정화하고 자기를 포함한 모든 가족의 몫을 내는데 대략 식사 한 끼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라마단 단식을 마치는 은총과 축복의 날이 “이들 피뜨르”인데, 소책자는 이 축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라마단이 끝날 무렵 무슬림은 하나님께 축복의 달 동안 단식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용한 양식을 베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다. 그러므로 이들 피뜨르는 기쁨의 날, 경배의 날, 그리고 협동, 결속, 형제애, 조화, 영혼의 풍요로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다. 하나님께서는 라마단 기간 동안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라마단의 마지막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취의 크나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영혼의 충만한 기쁨이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날이다.³⁶⁾

라마단 달을 단지 ‘단식하는 달’로서가 아니라, 꾸란과 예배 및 회사가 긴밀히 연결된 이슬람 문화의 대축제로서 인식한다면 무슬림들만을 위한 축화와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기회이며 비무슬림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이슬람의 축제는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상호 선교와 대화를 위해 접촉할 수 있는 열린 시간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이슬람의 경계가 무너지고 재창조되는 이슬람의 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4.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선교의 유형: 개종 모델

2007년 여름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기선교활동을 하던 한국 개신교인 23명이 탈레반에 피랍되어 그 중 2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다음으로 170여 개국에 14,0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한국의 개신교는 정부의 선교활동

36)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라마단과 단식』, p. 26.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충분한 준비 없이 전개함으로써 한국사회와 피선교국 교회의 비판을 받아왔다.³⁷⁾

이러한 적극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기독교, 특히 개신교를 개종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최근 5권과 6권이 출판되었다. 이 두 책자가 지닌 형식면의 특징은 이전 시리즈와는 달리 번역서라는 점이다. 원저의 저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 간 소통과 대화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알 아르파즈(Naji Ibrahim Al-Arfaj)이다. 그는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응용언어학박사를 마친 후 비교종교학을 공부하면서 강연과 방송을 통하여 이슬람 선교를 진행해 왔다. 소책자에는 번역자가 생략되어 있지만 알 아르파즈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는 그의 저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무슬림의 성명을 밝히고 있는데, 서울중앙성원의 출판담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터키출신 선교사(다이) 후세인 크르데미리(Huseyin Kirdemir)이다.³⁸⁾ 크르데미리는 터키 앙카라대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후에 서울대 국문과 석사를 졸업하고 지금은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에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성원에서는 2005년부터 문서선교를 담당하고 있다.³⁹⁾

특히 이 두 책자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기독교의 삼위일체교리와 그리스도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한다는 점이다. 이전까지의 시리즈는 이슬람의 핵심교리를 단순히 왜곡 없이 소개하는 차원에서 문서선교를 진행해 왔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기독교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차원으로 문서선교의 방향이 호교론으로 발전하였다.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슬람의 우월성과 절대성을 주장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교리의 논쟁을 토대로 이슬람 신학의 정통성을 주장한다. 5권의 결론에서 알 아르파즈는 다음과 같이 이슬람이 지닌 타종교와의 차별성을 언급한다.

성경(구약, 신약)과 꾸란에는 이러한 구절들과 유사한 증거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중략] 성경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략] 그러므로 이러한 확인들에 의해 신이라고 주장되는 많은 이름들, 즉 예수, 성령, 브라마(범천, 힌두교 최고의 신), 비슈누(힌두교 3대 신의 하나), 시바, 크리슈나(비슈누의 제 8화신), 또는 부처와 같은 존재들에게 신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닐 뿐만

37) 김종서, 「동서 종교사 충돌과 현대 한국의 역동적 신앙」, 《종교와 문화》, 제 16호, 2009, 21-22.

38) <http://www.abctruth.net/> 이 웹 페이지는 알 아르파즈의 저서를 12개국 언어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번역본은 크르데미리와 이형주가 공역한 것으로 나와 있다.

39) 크르데미리에 대한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를 참조하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716028001>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의 대리인도 아닙니다. [중략] 초기 기독교 유니테리언 공동체, 에세네파 교도들은 온갖 고문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만들어낸 삼위일체설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의 일신교적 가르침만을 따랐던 것입니다.⁴⁰⁾

앞 선 예언자들을 통하여 동일하게 전해져 온 알라의 유일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슬람의 정신이라는 설명은 결국 바울서신이 경전으로서 지닌 권위를 부정하고 주류 기독교 전통이 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평가에 도달한다. 신의 육화(incarnation)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 불교, 힌두교의 신관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이슬람의 초월적 신관의 절대성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삼신신앙(三神信仰)으로 단순화하며 “상식과 단순논리”에 기초하여 “모순”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6권은 원제의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슬람의 입장에서 기독교의 그리스도론을 더 직접적으로 비판한다. 5권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와 예수의 신격을 부정하지만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이며, 예수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며,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중략] 꾸란은 예수가 누구였는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그분을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예수 탄생 이후 약 600년이 지난 뒤에 보내진 최후의 계시에서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예언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합니다. 이 사명은 유니테리언들이 실제로 깨달은 방대한 시각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중략] 삼위일체, 예수의 신성, 원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예수의 피를 통한 구원 등, 기독교 신앙을 만든 사람은 바울(기원 후 5년 출생)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훗날 바울의 믿음과 가르침에 의해 퇴색되고 영향을 받게 된 4대 복음서 이전에 [바울]이 편지들을 썼다는 것은 학자 사이에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가르침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계시를 받은 예수의 신관 사이의 차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⁴¹⁾

한국 이슬람의 문서선교는 이슬람을 단순히 소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기독교의 신학을 비판함으로써 이슬람의 교리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기독교의 신관이 지닌 모호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문서를 제작하여 유포하고 있다. 물론

40) Naji Ibrahim Al-Arfaj, Just One Message!, 『단 하나의 메시지』 (서울: 한국이슬람중앙회, 2009), pp. 23-24.

41) Naji Ibrahim Al-Arfaj, God in Christianity: What is His Nature?,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서울: 한국이슬람중앙회, 2009), pp. 29-38.

이슬람이 역사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 아래 등장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비교를 통하여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선교방식의 필연성을 굳이 지적할 필요는 없겠지만, 문제는 사용하는 수사와 주장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IV. 결론: 요약과 전망

요컨대 한국의 이슬람은 알라의 단일성(따우히드)에 대한 신앙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계시적 완성을 두 축으로 하여 다와를 전개해 왔다. 전통적으로 선교의 방식에 대한 탐구보다는 이슬람의 법체계를 이루는 꾸란과 하디스를 토대로 선교의 내용을 개발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어왔지만, 최근 들어 선교의 방식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점차 선화하고 있다. 이는 21세기 이슬람에 대한 서구의 편견과 선입견이 증폭되면서 무슬림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방어의 논리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기독교와 불교가 주류 종교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 한국 사회에서 세계종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소수자의 종교로 머물러 있는 이슬람을 한국의 비무슬림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문서로서 이슬람 문고 시리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출판된 소책자가 기독교의 신학을 ‘호교론적인’ 태도로 비판하는 것은 공존과 평화를 추구한다는 다원적 현대사회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소책자의 번역과 함께, 한국 무슬림의 집필을 토대로 한 이슬람과 관련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대화의 노력도 보다 직접적이며 진솔한 분위기에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6월 한국언론재단에서 비공개 이슬람 대화 모임이 열렸다. 한국종교인 평화회의와 한국이슬람교의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이해와 공존을 위한 종교간 세미나”에서 “이슬람, 다가서다.”라는 주제로 한국종교를 대표하는 7개 종단들과 한국 이슬람 간의 대화가 시도되었다.⁴²⁾ 이에 앞서 5월말에 있었던 종교교육학회에서도 “대화방법과 종교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이슬람의 대화와 소통의 원칙을 이슬람의 법체계(샤리아)에서 찾는 시도가 있었다.⁴³⁾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 이슬람

42) 이희수, 「한국에서 무슬림과 소통하기: 한계와 유용성」, 『이슬람, 다가서다: 이해와 공존을 위한 종교간 세미나』, 세미나자료집, pp. 56-71. 한양대 인류학과의 이희수교수는 “이슬람이 참여하는 보다 포괄적인 종교인 협의체나 상시적 대화 채널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제 본격적으로 학계와 종교계에서 단순히 개종과 피상적 이해의 대상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참여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초기 이슬람의 교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서선교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부카리 하디스에 따르면,

아나스(Anas bin Malik)가 말했다. 예언자(무함마드)가 편지를 쓰거나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서신에 인장이 찍혀 있지 않는다면 왕들이 그 서신을 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예언자는 은반지에 “알라의 예언자, 무함마드” 라고 새길 것을 명하였다.⁴⁴⁾

당시 인장이 찍힌 문서만을 신뢰하던 정치지도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이슬람으로 초대하기 위하여 무함마드도 그 당시 관습과 문화를 수용하고 인장을 만들어 문서선교에 활용하였다. 앞으로 한국 이슬람의 다와는 문서선교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람 관련 시청각자료와 미디어의 개발, 꾸란과 하디스의 번역, 이슬람을 소개하는 단행본과 소책자의 출판, 방송매체를 통한 지식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인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한국 문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이슬람의 매체개발은 아직도 상당한 준비를 위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한국 이슬람의 다와는 공동체의 부족한 내적 재원을 상당부분 외부에서 충원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한국 무슬림 공동체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선교의 현장에서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무슬림과 이주 무슬림이 연합하여 이슬람 선교를 한국 사회에서 실천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당분간 괄목할 만한 큰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재원과 인력의 부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문서선교를 강화하면서 한국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핵심교리, 실천, 공동체의 특징을 한국사회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다.⁴⁵⁾ 아직까지도 무슬림은 ‘소외된 계층’이라는 고착된 인식 때문에 차별을 우려하는 일부 한국 무슬림들은 자신의 신앙을 공적 영역에서 잘 드러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소극성과 피해의식은 오히려 직접적인 선교방식보

43) 박현도, 「대화와 소통의 관점에서 본 이슬람교」, pp. 9-24. 필자는 이 논문의 논평자로서 이슬람의 소통방식에 대한 지나친 일반론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대화와 소통의 문제는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매우 상이한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44) *Sahih Al-Bukhari*, trans. by Muhammad Muhsin Khan (Riyadh: Darussalam, 1996), p. 84.

45)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한국 이슬람 50년사』(서울: 한국이슬람교중앙회, 2005), p. 40.

다는 간접적인 문서선교와 매체선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슬람 다와는 비무슬림뿐만 아니라 기존의 무슬림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미 살펴 본 이슬람 문고 시리즈의 경우처럼, 기존의 입교한 무슬림을 재교육함으로써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강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동시에 비무슬림에게는 이슬람의 신행을 효과적으로 쉽게 전달하여 지금까지 왜곡된 서구의 미디어 보도에 의하여 형성되었던 한국사회의 편견을 제거하는 복합적인 양방향 선교방식을 개발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슬람 다와를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선교의 방법들과 덕목들 및 실천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 선교의 사례들과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지만, 이슬람 다와가 기독교를 포함한 한국의 주류 종교들과 어떤 측면에서 교리와 선교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지, 나아가 이웃종교에 대한 상이한 이미지를 어떻게 매체를 통하여 유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이슬람 다와, 꾸란, 하디스, 문서선교,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유형, 변화

원고접수일: 2010년 5월 19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4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9일

참고문헌

- 김상근, 「이슬람포비아에 대한 선교신학적 성찰」, 《선교신학》, 21집 (2009), 171-196.
- 김종서, 「동서 종교사 충돌과 현대 한국의 역동적 신앙」, 《종교와 문화》, 제 16호, 2009, 21-38.
- 박현도, 「대화와 소통의 관점에서 본 이슬람교」, 2010년도 한국종교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pp. 9-24.
- 안 신, 「이슬람 선교의 다양화와 종교학의 기여: 이해와 화해, 그리고 대화의 선교」, 《선교신학》, 제 23집, 2010, 123-151.
- 안 신, 「서양영화의 이슬람 편견에 대한 연구: 네덜란드 단편영화의 무슬림 폭력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30-3호 (2010), 165-190.
- 안 신, 「무슬림 여성의 히잡착용에 대한 종교현상학적 해석: 정치적 기제에서 종교적 상징으로의 전환」, 《아시아여성연구》, 48권 2호, 2009, 185-220.
- 안 신, 「유럽 이슬람 공동체의 최근 동향과 전망: 서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2. no. 2. (June 2009), 19-51.
- 안 신, 「이슬람 다와와 기독교 선교에 대한 비교 연구: 폭력과 비폭력의 경계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제 50집, 2008, 219-245.
- 안 신, 「부흥과 선교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종교 현상학적 해석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 21집, 2008, 193-219.
- 이희수, 「한국에서 무슬림과 소통하기: 한계와 유용성」, 『이슬람, 다가서다: 이해와 공존을 위한 종교간 세미나』, 세미나자료집, pp. 56-71.
- 전재옥, 『기독교와 이슬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 최영길 역,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마디나: 파하드 국왕 성 꾸란 출판청, 1997.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한국 이슬람 50년사』, 서울: 한국이슬람교중앙회, 2005.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초보자를 위한 이슬람 바로보기』, 서울: 한국이슬람교중앙회, 2006.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슬람이란?』, 서울: 한국이슬람교중앙회, 2006.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예배입문』, 서울: 한국이슬람교중앙회, 2006.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라마단과 단식』, 서울: 한국이슬람교중앙회, 2008.

- Sahih Al-Bukhari, trans. by Muhammad Muhsin Khan. Riyadh: Darussalam, 1996.
- Al-Arfaj, Naji Ibrahim. Just One Message!. 『단 하나의 메시지』, 서울: 한국이슬람중앙회, 2009.
- _____, Naji Ibrahim. God in Christianity: What is His Nature?.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서울: 한국이슬람중앙회, 2009.
- Kerr, David. "Islamic Da'wa and Christian Mission: Toward a Comparative 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vol. 89, no. 353 (April, 2000), 150-171.
- Mababaya, Norlain Dindang. Da'wah according to the Qur'an and the Sunnah. Riyadh: Darussamlam, 1998.
- Shaikh, Khalid Mahmood. Da'wah in Modern Times. New Delhi: Adam Publisher, 2006.
- Taylor, Jenny. "Islamophobia and the Church," in Lesslie Newbigin, Lamin Sanneh, and Jenny Taylor, eds. Faith and Power: Christianity and Islam in 'Secular' Britain. London: SPCK, 1998, pp. 127-131.
- Van der Leeuw. G. *Religion in Essence and Manifestation*. trans. by J. E. Turner, New York: Harper & Row, 1963.
- Wardernburg, Jacques. *Muslims and Others: Relations in Context*.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 Wilson, David Sloan. Darwin's Cathedral: Evolution, Religion, and the Nature of Society (2002), 이철우 역, 『종교는 진화한다: 진화론과 종교, 그리고 사회의 본성』, 서울: 아카넷, 2004.

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Korean Islam and Christianity:

Cross-Cultural Mission and Literature Mission of Korean Muslims

Ahn, Shin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foundations of Islamic mission (Da'wah) and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literature mission of Korea Muslim Federation. Muslims regard mission as God's calling and Muslim's duty, so they use various types of media contents for Da'wah.

First, Qur'an and Hadith are the foundations of Islamic mission. Faithful Muslims are expected to invite non-Muslims to join in Muslim community (Ummah), which they regard as the best community under the reign of Allah. They believe that Jews and Christians distorted the original messages of God, which Prophet Muhammad received without any change and addition. Therefore, Islamic mission is to restore the revelation of God against materialism and pluralism.

Second, Korea Muslim Federation published series of booklets on Islam and Muslim cultures. The volume one of these series deals with the six articles of Islamic faith. The volume two explains the meaning of prayers, but the volume three introduces Islam to non-Muslim in more friendly way. The volume four touches the Islamic spirituality by examining the meaning of Ramadan and fasting. The last two volumes, however, criticize the Christian concept of Trinity and the divine nature of Jesus Christ, which the author think problematic and improper.

In conclusion, following the traditions of Qur'an and Hadith, Muslims will proclaim the oneness of God and the authority of Prophet Muhammad.

Non-Muslim scholars need to study the manufactured images of other religions in the contents of Islamic literature mission.

Key Words: Islamic Da'wah, Qur'an, Hadith, Literature Mission, Korea Muslim Federation, Type, Change.